



◀실제와 비슷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소니의 개인용 3D HMD 3세대 모델인 HMZ-T3W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안경처럼 착용하면 각종 영상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사진제공 | 소니

안경처럼 끼면 ‘가상현실’이 펼쳐진다

입는 모니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넓은 시야각·대형 화면...3D영화 보는 듯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영상도 재생 가능 모션 인식 HMD 등 게임에 접목 사례 증가

보다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즐겨보자. 최근 IT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가상현실’이다. 실제와 비슷한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기기들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그 중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다. HMD는 안경처럼 착용하고, 이를 통해 각종 영상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기. 최근엔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해 ‘입는(웨어블) 컴퓨터’의 일종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일반 동영상 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중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임에 접목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엔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시야가 변하는 디바이스까지 등장했다.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

HMD는 마치 극장에서 3D영화를 보는 듯 동영상을 실감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표적 예가 바로 오픈스의 ‘모베리오 BT-100’과 소니의 ‘3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다. 최근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소니는 개인용 3D HMD 3세대 모델(HMZ-T3W)을 내놔다. 이 제품은 전자와 비교해 더욱 박력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화질 무선 영상데이터 전송기술을 적용해 TV셋톱 박스나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의 영상데이터를 MHL 혹은 HDMI로 연결해 재생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영화 등 각종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45도의 넓은 시야각과 750인치 대형 화면, 생

생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7.1 채널 버추얼 서라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게임에도 접목 사례 늘어

가장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콘텐츠인 게임에 접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소니는 실제로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에서 HMZ-T3W를 이용해 대표적인 레이싱게임 ‘그란 투리스모6’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에 특화된 HMD는 또 있다. 화제의 ‘오컬러스 리프트’가 바로 그것이다. 오클러스 브리알이 개발한 이 제품은 특히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시선이 바뀌어 보너 더욱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풀HD급의 화질까지 갖췄다. 지난 ‘지스타’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이 제품은 현재 개발자용으로만 나와 있지만, 소비자용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더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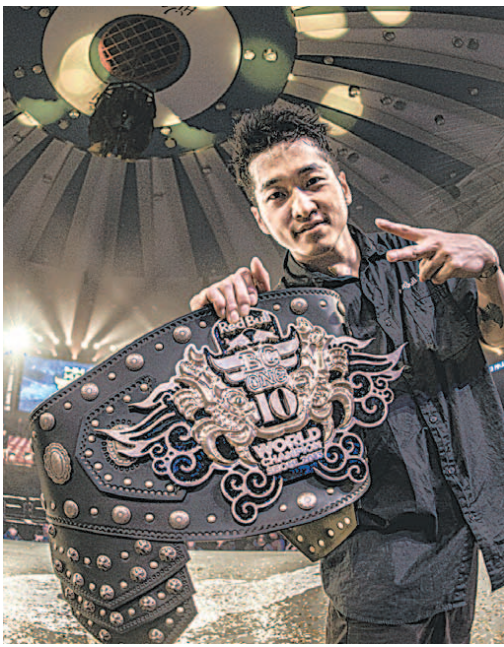
토종 비보이 흥텐, 춤으로 ‘세계정복’

■ 레드볼 비씨원 2013 서울월드파이널

역대우승자 등 탑클래스 16명 왕중왕 배틀 결승서 佛 무니르 누르고 월드챔피언 등극

“흥텐!” 전 세계 비보이 왕중왕 왕관의 주인은 한국의 흥텐(Hong10·김홍열)이었다. 비보이 흥텐은 지난 11월30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레드볼 비씨 원 2013 서울월드파이널에서 세계 챔피언에 올라 비보이 역대 최고수에 등극했다. 준우승은 프랑스의 무니르가 차지했다. 2006년 레드볼 비씨 원 월드파이널 우승자인 흥텐은 이번 우승으로 비씨원 역사상 최고 비보이로 등극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킬루와 함께 월드파이널에서 두 번째 우승한 선수가 됐다. 레드볼 비씨 원 월드파이널 역사상 자국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는 흥텐이 유일하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비보이 대회인 레드볼 비씨 원이 10주년을 맞아 역대 우승자 8명을 포함해, 지역결선 우승자 6명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2명 등 탑클래스 비보이 16명이 참가



비보이 흥텐이 지난 11월30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레드볼 비씨 원 2013 서울월드파이널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무니르를 제치고 우승한 뒤 월드챔피언벨트를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레드볼

해 꿈의 배틀을 펼쳤다. 레드볼 비씨 원은 일대일 배틀 토너먼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비보이 대회다.

이번 대회 1라운드인 16강전은 역대 월드파이널 우승자들이 올해 지역결선 우승자 및 와일드카드 선발 선수들과 맞붙었다. 역대 우승자들은 전원 4강에 진출하며 우승자의 관록을 보였다. 특히 4강 A조에서는 프랑스 대표 킬루와 무니르가 진출했고 대한민국 대표 흥텐과 윈은 B조에 진출해 프랑스와 한국 모두 같은 국가대표 간 대결을 통해 결승 진출자를 결정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4강전 A조에서는 2012년 월드파이널 우승자인 프랑스의 무니르가 유일한 월드파이널 2회 우승자(2005년, 2009년)인 같은 나라의 킬루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B조에서는 2006년 우승자인 대한민국의 흥텐이 2008년 우승자인 윈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흥텐과 무니르 간의 최종결승은 양 선수 모두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배틀을 벌인 결과 흥텐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비보이 출신인 K팝 아티스트 박재범이 사회를 맡았고 타이거 JK와 윤미래, 비지의 공연과 함께 한국계 캐나다인 비트박스 월드챔피언 임테리와 세계적인 안무가 마이크 송이 독특한 비트박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겨울여행의 백미는 역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힐링하는 온천여행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입과 몸이 즐거운 건강여행’을 테마로 12월에 즐길 만한 온천과 별미여행 관광지를 선정했다. 강원도 양양 오색온천 노천탕에서 휴식을 즐기는 관광객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한겨울 추위 녹이는 온천여행 ‘힐링에 딱’

TOUR & INFO 겨울여행의 백미 ‘온천여행’

충주 ‘수안보온천’ 취향따라 고르는 재미
양양 ‘오색온천’ 탄산·알칼리 온천 동시에

혹독한 겨울 날씨가 찾아왔다. 이럴 땐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거기에 겨울 별미까지 담으로 맛볼 수 있는 여행지가 제격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입과 몸이 즐거운 건강여행’이라는 테마 아래 12월에 가볼 만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르는 즐거움이 가득

충북 충주 온천 여행의 매력은 ‘다양함’이다. 한겨울 추위로 거뜬히 이겨내는 53℃의 수안보 온천, 보글보글 탄산 기포가 터지는 양성온천, 유황 냄새 매개한 문강온천이 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온천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다녀갔다는 수안보온천. 이곳의 온천수는 1963년부터 충주시에서 관리하는데, 2000톤짜리 저장 탱크를 두고 27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한다. 덕분에 수안보온천 이용자는 취향에 따라 골라서 즐길 수 있다. 평요리와 능이버섯전골, 두부전골 등 추위를 이기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물 느끼고 대개도 먹고

겨울이라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몸과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온천욕과 속이 팍 찬 대개가 기다린다. 신라 시대에 처음 발견했다는 백암온천은 53℃나 되는 고온으로 여행객의 피로를 녹여준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울진대개를 맛보려면 후포항이 제격이다. 울진대개·붉은대개 홍보전시관과 울진대개유래비도 만나 볼 수 있다.

●물 좋기로 소문난 힐링 천국

소백산맥 끝자락을 장식한 전남 영암의 월출

산 아래 월출산온천은 물 좋기로 소문났다. 약 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백탄식 온천수’라 불리는 데, 신체에 부담이 적고 피로회복 효과가 탁월하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증 안마 장치가 부착된 매그네틱에서 기포 마사지를 받으며 뭉친 어깨 근육이나 관절을 부드럽게 풀 수 있다. 영암의 대표 음식은 갈낙탕이다. 독천 낙지마를 30여 개 낙지 전문점에서는 갈낙탕을 비롯해 연포탕, 낙지구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온천욕에 파전과 곰장어까지

뜨끈한 온천욕에 고소한 파전과 매콤한 곰장어구이 한 점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부산 동래온천은 조선 왕국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3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대형 온천탕으로 유명한 허심청을 비롯해 녹천탕, 천일탕 등 대중탕이 여럿 있고, 객실에 가족탕이 딸린 온천 호텔과 모텔도 즐비하다. 무료 노천 족욕탕 두 곳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다.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고 두툼하게 부친 동래파전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곰장어구이는 온천 못지않은 동래의 명물이다.

●탄산과 알칼리 온천을 동시에

강원도 양양의 남설악 주전골에 자리 잡은 오색온천은 탄산 온천과 알칼리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 많아 몸이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도루묵과 함께 겨울의 진객으로 알려진 도치는 목은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끓이는 양양의 별미다. 김명근 기자



충주 수안보온천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찌개요리? 재료만 넣고 끓이면 완성!

찌개별 다양한 양념 제품 잇따라 출시
종가집 ‘데이즈 찌개양념’ 여행용 OK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면서 간편하게 찌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념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에서는 ‘데이즈 찌개양념(사진)’을 선보였다. 청양초와 재래식 된장으로 만든 ‘토속 찌개 된장’, 국산 청국장과 묵은지로 구수한 맛을 내는 ‘묵은지 청국장’, 조개 육수와 콩된장으로 깔끔한 ‘순한 국 된장’ 등 라인업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바지락 순두부 찌개’, ‘얼큰

부대찌개’ 등의 구성된 여행세트를 통해 겨울 나들이족 입맛 잡기에 나섰다.

청정원에서는 갖은 양념이 들어있어 추가 양념 없이 그대로 끓여도 맛을 낼 수 있는 장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청국장과 된장찌개용으로 선보인 ‘그대로 끓여도 시골맛 청국장 찌개’와 ‘그대로 끓여도 깊은맛 우렁된장찌개’는 요리 솜씨와 상관없이 제품을 그대로 넣고 끓이면 청국장과 된장찌개를 완성할 수 있어 인기가.

풀무원에서는 ‘찬마루 청양초 된장찌개 전용’ 제품을 출시했다. 구수한 전통 된장에 깔끔한 청양초를 넣은 제품으로, 주재료에 된장을 넣고



물만 부어 끓이면 간단하게 찌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사조대림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 늘부와 함께 ‘가정 간편식 7종’을 출시했다. 특히 늘부의 대표 제품인 부대찌개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소스와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 인기가. 기호에 맞게 재료를 추가해 얼큰한 찌개를 끓일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ow

된 ‘T끼리요금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KT ‘알 무제한 이월’ 혜택 제공

KT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알 무제한 이월’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요금제는 ‘LTE-알’(5종)과 ‘알스마트’ 요금제(4종)다. 남은 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다음 달로 이월돼 누적된다. 이월된 알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데이터·음성·문자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단, 15만 알 이상 누적되면 더 이상 적립은 되지 않는다.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술. 해당 소비자에게 자동변경 시행일 일주일 전과 하루 전, 그리고 당일에 변경될 번호와 함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SKT,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증가

SK텔레콤은 1일부터 3만~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3G·LTE)이용 고객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6배 늘렸다. 기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일부터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 요금제는 ‘울인원 34·44’와 ‘LTE 34·42·52’이며 확대 제공량은 요금제별로 250MB에서 700MB까지다. 단, 망 내외무제한 통화를 통해 음성혜택이 크게 강화

01X 번호 3G·LTE폰 내년부터 010 전환
011·016·017·018·019 등 ‘01X’를 쓰는 3G와 LTE 휴대전화 약자가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상자가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발신이 중지된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3G와 LTE 휴대전화로 ‘01X’ 번호를 사용 중인 소비자의 번호가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 고객 약 115만 명이다. 자동 전환은 무선 업그레이드 기술(OTA)을 통해 이뤄진다. OTA는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송수신하는 기